

흑산공항 연내 착공 불투명...장기 표류하나

국립공원 계획 변경 환경부 심의 “철새 이동 중간 기착지...보호 대책 마련하라” 압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안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연내 착공이 불투명해지는 등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흑산도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만큼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부 심의가 여전히 압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며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 컨소시엄은 지난 10일 흑산공항 기본설계안을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했다. 기본설계가 다음 달 10일 예정인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금호는 설계 적격자로 인정받아 조달청과 예비계약을 한다. 실시설계는 120

일가량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금호 측이 절차를 서둘러 순조롭게 진행해야만 연말 착공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환경부 심의가 걸림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진행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철새 이동의 중간 기착지인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될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철새 보호 대책 등을 요구하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올해 상반기 중 재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정비 절차 등으로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신안군 등은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

다.

흑산권역 개발 추진협의회는 주민 6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올해 7월 환경부, 국토부 등에 다도해상 국립공원계획 조속 변경과 흑산공항 조기 착공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섬 주민들의 응급구호와 교통불편 해소, 서남해 영토수호 및 자원관리, 관광객 증가 등 지역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흑산도에서 서울을 가는데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단축돼 섬 주민, 관광객 등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흑산도는 연간 30여만명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이용해 왕래하고 있으나 결항률이 13%에 이르러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일운 흑산권역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철새도 중요하지만 섬 주민이 살아가는 환경도 중요하다”며 “흑산도 주민들은 공항건설 후에도 철새와 공존할 수 있으니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흑산공항은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국비 1833억원이 투입된다.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대 68만4000㎡에 1200m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갖춰 오는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흑산공항은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운용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문 대통령 개혁 정책 탄력 받는다

첫 업무보고...토코쇼 형식 대국민 보고대회도 가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열흘에 걸쳐 각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없이 출범, 내각 전용 완비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주요 정책과 메시지 생산은 청와대가 주도했지만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중앙정부 직제가 사실상 완성됨으로써 내각 차원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부처 업무보고 이후에는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라는 국정운영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80%를 넘나들면서 개혁 드라이브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는 280여 명의 국민인사위원이 참석해 새 정부의 정책과 개혁과제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누는 ‘토코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받은 질문은 국민인사위에 접수된 의견과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을 토대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참 대담장에서 열린 합참의장·취임식·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군 이래 현직 대통령이 합참의장·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제보조작’ 오늘 첫 재판

당 관계자 인지 유무·검증 노력등 공방 예상

국민의당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유미(38·구속)씨와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서는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당 관계자들이 정말 몰랐는지, 검증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 조작을 사실상 총괄했고,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단이 준용씨의 특혜채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했으며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점을 몰랐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도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스너디자인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기록자에게 제공했다는 등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따로 기소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도 판단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산하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이후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스너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조작된 증언이 들어 있었다.

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는 이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부겸(맨 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9일 광주 동구 I-PLEX 광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장관 “2019 광주 세계수영 적극 지원”

선수촌 건립 현장 방문...청년창업자 만남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9 세계수영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 19일 광주시 광산구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현장을 둘러본 뒤 “선수촌, 경기장 등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줄이려는 열정에 감사하다”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도 저비용 고효율로 치렀다”며 “수영대회도 민·인·공·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광주시는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 도로, 가로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4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어 광주 동구 아이 플렉스(I-FLEX)를 방문해 청년창업 현장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하드웨어와 청년의 열정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광주 방문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면 ‘도시공원 일몰제’서 계속

제안 요청서의 제안서 쪽수 및 감점 기준 등 세부 조항과 함께 제안자의 사업실적은 유사한 사업실적 외에 동일한 사업실적을 추가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1단계 제안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제안업체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측면이 강하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시민평가단,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민관 거버넌스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광주시가 주도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에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지향점 없이 참여할 경우 자칫 도시공원 난개발을 예방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이번 주 내에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민단체 등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관 거버넌스 운영의 진정성과 지향점을 공유한다면 당장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해 바람직한 도시공원 조성 방향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도시공원 내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오는 22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동신대 리크사업단 등은 광주시의회 예정위 회의실에서 1차 토론회를 갖고 중앙·중외·일국·영산강대상공원의 일몰제 대응방안에 대해 조진상 동신대교수, 류영국 지오게이트 대표이사, 조동범 전남대교수, 이명규 광주대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는 ‘도시공원 해제가 기존 도시계획, 지역주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2차 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강의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

전남대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어릴마당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특전: 지난 34년간 터득한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격 취득희망시, 국가공인부동산실질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특목 책임지도하며 수요자 모집체 결성후 평생지도 (공무원, 교직원, 학생 할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공전략강의”

강의기간	9월~12월(15주) 각 과정 선착순 50명마감
장소	조선대 평생교육원 ☎ 230-7700 / 남부대 평생교육원 ☎ 970-0080 /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4
일시	매주(화요일) 3시~5시 / 7시~9시 / 매주(수요일) 7시~9시 / 매주(목요일) 7시~9시
수강료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집, 삼거리 코너(뒷집 작업중),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총장사 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앞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옆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금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산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 모집기간: 2017년 8월 25일(수) ~ 2017년 9월 7일(목)
- 교육기간: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ege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국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8월 25일(금)
- 교육기간: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순천대학교) 농협 643-01-007060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lilel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송용국 010-9416-1200